

천문학자 강영운 교수

순수기초학문에 대한 관심은 미래를 위한 투자

글_이주연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하늘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은 태곳적부터 시작된 것이다. 고대의 제사장은 모두 하늘을 '모시고 살피는' 천문학자였다. 현대에도 우주는 여전히 신비로운 존재지만 이제 우리는 소련의 우주센터에서 '우주비행사'를 훈련시키고, 우주에 설치한 허블망원경이 찍어 보내는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보다 생생한 우주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

세종대학교 '우주구조와 진화연구센터' 강영운 소장은 국내의 대표적 천문학자다. 10개 대학의 천문학과 교수 및 천문연구원 등 80여 명의 천문학자로 이루어진 이 센터는 지난 2002년 7월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이 지정하는 우수연구센터로 출범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천문학에는 새로운 우주론이 등장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진화한다는 것은 이미 1940년대부터 나온 얘기지만 2000년대가 되면서 그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가속 팽창의 원인은 최근 천문학과 입자물리학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우리 센터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이런 우주의 형성 및 진화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설립된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천문학이라고 하면 별자리의 낭만이나 외계의 생명체와 같은 별로 실용적이지 않는 부분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강 소장은 일견 실용적이지 보이지 않는 "순수한 호기심과 의문이 순수과학 같은 기초분야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순수과학 분야에서도 마이너에 속하는 천문학이 일반인들과 보다 가까워지는 방법은 대중화된 천문학 서

적을 통해서이다. 강 소장은 "천문학 서적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출판을 기피해 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그렇다고 스티븐 호킹의 책만 소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일단 그는 천문학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연 사건과 인물에 대한 책을 추천했다.

《코페르니쿠스》(마버러 A. 서머빌 지음 | 이충호 옮김 | 아이세움)는 지동설의 창시자 코페르니쿠스의 삶과 이론을 다룬 책입니다. 당시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천동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낼 용기가 없었는데 그가 지동설을 주장하는 책을 낸 것입니다. 지동설을 기점으로 동서양의 과학은 발전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 전기를 마련한 이가 코페르니쿠스인 셈이죠. 《가모브가 들려주는 우주론 이야기》(곽영직 지음 | 자음과모음)는 빅뱅 우주론의 창시자인 가모브가 우주의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특히 국내 저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눈높이를 맞추어 집필했기 때문에 번역서의 단점을 보완해 '빅뱅' 이론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강 소장은 《아름다운 우주스토리》(전2권) (낸시 헤더웨이 지음 | 강영운 옮김 | 세종서적)라는 우주 입문서와 《An Introduction to Modern Astrophysics》(Carroll, Bradley W./ Ostlie, Dale A. 지음 | Addison-Wesley)라는 원문 개론서를 추천했다.

"한때 활발했던 천문학 서적 출판이 2000년대 들어와서 지지부진한 것은 독자의 외면과 천문학 서적 필자의 부족 등이 원인입니다. 책을 통한 연구자와 독자의 만남은 순수기초학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양쪽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순수기초학문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니까요." **강소**

